

바닥을 치고서야 발견한 또 다른 세상

김성령

“제주 유기농 말차 프라프치노, 자바 칩 프라프치노, 세븐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진한 녹차 케이크 주문하신 게 맞으실까요?”

카페 직원이 나에게 물었다.

“네? 뭐라고요?”

“주문하신 게 제주 유기농 말차 프라프치노, 자바 칩 프라프치노, 세븐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진한 녹차 케이크 맞나요?”

어수룩한 내 표정을 보며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큰 소리로 되물었다.

“...아, 맞아요.”

“결제는 어떤 식으로 도와드릴까요?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은 따로 안 하시나요?”

“네? 죄송해요.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이후로도 주차권, 할인 혜택, 프로모션 이벤트 등 여러 번의 질문을 오간 뒤에야 나는 겨우 주문을 끝마칠 수 있었다.

며칠 전, 엄마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선 후 오랜만에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기 위해 카페를 찾은 일이었다. 평소와 같이 메뉴를 주문하기 위해 계산대에 나섰지만 나는 전보다 더 주문하는 데 애를 먹었다. 청각장애인이긴 하지만 구화를 주로 사용하는 나로서 예전 상황이었다면 나름 막힘없이 주문했지만, 지금은 계산대에 서는 자체만으로 두렵다. 어머니는 아직 신문물이 어려우시기에 식당에

가면 주문은 늘 내 몫으로 당연했지만, 마스크 한 장이 나에게 언어의 장벽으로 다가올지 재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 코로나 사태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세상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대개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나 구화(입술을 읽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사소한 일상마저 쉽게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당장 구화를 사용하던 나조차 간단한 주문 과정임에도 버거워하며,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해 실수하지 않을지를 걱정해야 했다. 반대로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지만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닌 것이 나왔을 경우 내 잘못이라고 스스로 자책하며 군말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주변 사람에게 코로나 상황이 이젠 당연한 일상이라며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스스로 자신을 움아매고 있었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농인의 고충을 두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어떻게 소수의 사람까지 신경 쓰냐'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난 이전부터 농인들의 고충은 함께였고, 재난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늘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도드라지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 19로 사회의 양극화를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질병으로 인해 휴학 중인 나는 현재 다음 해 복학을 목표로 전공 공부나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 학원을 가고자 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고 코로나 사태가 도무지 진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괜히 매일 공부하러 다니다가 혹시나 감염되어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 온라인 강의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에겐 얼마나 큰 불편을 초래하는지 온라인 강의를 듣기 전까지 미처 몰랐다.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속기사와 같은 학습 도우미가 따로 없고 음성 인식으로 이뤄지는 자막 변환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전공 용어 등을 엉뚱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자막을 지원하는 콘텐츠도 찾아보기 힘들지만 '수어'가 들어간 콘텐츠는 이보다 찾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수어를 쓰는 학생들에겐 수어 없는 자막 영상이란, 수어랑 한국어가 전혀 다른 문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력을 떠나 동시에 영상 자막을 외국어 해석하듯이 읽어야 하고 동시에 해당 과목 공부를 해야 하니 어려움이 크다. 나는 고교 입학을 시발점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청력 때문에 조금씩 수어도 학습하면서 학업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온라인 강의는 지금껏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쌓아온 요령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교육 환경과 우수한 연구 실적을 자랑하지만 정작 소수의 장애인 교육 인프라는 지금에서야 만들고 있었다. 나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과거처럼 악착같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내 어떻게든 학업에 임했을 것이다. 하지만 속기사 부재, 제한된 자막 영상 등 재난 속 장애인의 교육 환경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하는 것은 나에게 1 대 1000 가까이 압도적인 수를 자랑하는 상대 앞에서 장비나 말, 지원군 없이 맨몸으로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 싸워보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로였다. 이 현실이 장애인인 내가 앞으로 꾸준히 만나게 될 사회의 벽이라는 것이 답답했지만 개선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이내 나는 불공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학업에 집중해야 했다. 반대로 내가 오프라인 대면 강의를 신청했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강사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명마스크가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반 마스크보다 가격이 비싸고 강사와 전체 수강 인원이 착용해야 효과를 보기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수어 통역사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통역해야 할 강의는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면 수강 인원이 매우 적게 제한될 것이고 설사 수업을 듣는다 해도

강사의 말 중심으로 통역하게 된다. 이 경우 촉박한 시간 싸움 속 빠르게 이뤄지는 실습 시간에 따라가지 못할 때 질문하기가 어렵고, 조별과제 등 소규모 활동은 통역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속 내가 바라본 청각장애인의 교육권은 위협받고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만날 수 있었다. 바로 '라면형제'다. 이 사건은 엄마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을 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이후, 형제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연기를 과다 흡입한 동생이 끝내 숨졌다. 편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느라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 의존하곤 한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으로 기관들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끼리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방치 논란이 불거졌고 '최후의 보루'인 학교조차 문을 닫으면서 제도권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놓쳐버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났다. 세간의 관심을 끈 '라면형제의 비극'은 실상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한 돌봄 공백의 한 모습이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거리 두기 명절을 앞두고 내가 사는 미추홀 구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그 어떤 사건들보다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자기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병상에 있는 형제가 하루빨리 일어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에도 동참했지만 결국 한 아이는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온 것은 사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그 결과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제도상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불평등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기의 시기에 정부지원금과 같이 일시적인 지원만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대폭 늘어난 고독사, 소득 격차로 인한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고통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19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서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는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놓친 빈틈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도록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웃 일이 남 일 같지 않다.'는 정서를 가지고 3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법과 대책을 집행하는 시스템의 허점과 한 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할 일만 하고 손을 뉘버린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발생한 '라면 형제의 비극'이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 말고, 각각의 정책이 개인권 침해 없이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첫걸음이다. 반대로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며 지금처럼 코로나 속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 19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위축됐지만, 이웃들을 생각하는 온정이 식어서는 안 된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답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스크는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약속이기에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금처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낮고 약하고 힘든 곳에서 종교는 힘든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어야 한다. 종교는 사회와 소통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기에 어떤 분야보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일부 교회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방역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동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임을 인지하고 재난에 지친 사람들의 영적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맞게 종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또 우리의 언론은 동시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뉴스, 가치 있는 뉴스, 투명한 뉴스를 생산하는 건강한 언론으로 성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언론은 약자에 관한 뉴스가 자극적일수록 관심을 둔다. 코로나 19로 요양원이나 격리시설 면회가 엄격히 금지됨에도 요양원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코로나로 인한 요양원 격리시설의 현실 등 약자와 재난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만든 감성팔이 뉴스에만 집중한다. 반복되는 요양원 집단 감염에 있어 어떻게 대응하고 개선하려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언론은 늘 프레임 안에서만 움직인다. 언론은 늘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며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현상에 가려진 진실을 보기 위해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한다. 국민 곁에 이러한 언론이 존재해야지 만이 예측할 수 없어 더 힘든 코로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다.

2020년 현재, 코로나 19는 소득의 불평등, 소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 직업과 주거에 대한 차이, 나아가 문화와 언어의 장벽이 모두 재난과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 시대의 큰 숙제가 될 것이란 뼈아픈 비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나와 우리 공동체 모두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일상화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모범국가'라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성취를 얻게 되었다. 또 방역을 위한 의료진의 헌신과 전문성, 신뢰의 상징인 질병관리본부의 노고로 우리는 재난에도 극복하며 곳곳하게 살아올 수 있게 되었다. 나 또한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기 위해 잠깐 마스크를 벗는 순간, 마스크를 벗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어쩌다 보는 그 순간, 소소한 일상이 엄청난 행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하는 영웅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인과의 약속도 거의 잡지 않고 외출도 최대한 자제한다.
어쩌다 한 번 외출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을 성실히 하고 수시로
손발을 씻는다. 그러나 아직도 재난문자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고 있다. 그렇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시로 뉴스를
확인하며 변경된 사항대로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성실히 지키려 한다.
나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여 코로나 19의 완전한 종식과
함께 우리 사회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